(1) 공지사항 주님 공현 대축일

신임 사목위원 연수

- 일시: 1월 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울뜨레아 신년 하례식

- 날짜: 1월 9일(화) 오후 6시
- 장소: 성당
- 준비물: 길잡이, 타이스링, 묵주

병자 영성체

- 날짜: 1월 10일(수)

첫고해성사

- 날짜: 1월 14일 (주일) 교중미사 후
- 대상: 12월 16일 세례자 (사랑반)

사목위원 이.취임식

- 날짜: 1월 14일 (주일) 교중미사 후

마태오 연수 봉사자 회의

- 일시: 1월 14일 (주일) 오후 2시 (가브리엘방)

총 사목 평의회

- 일시: 2018년 1월 16일 (화) 오후 7시
- 장소: 순교자 기념관
- 대상: 사목위원, 재정위원, 구역장/반장, 각 단체장

가톨릭 혼인법 강좌

- 일시: 1월 17일(수) 오후 8시
 - 1월 18일(목) 오후 8시
 - 1월 19일(금) 오후 8시
- 1월 2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제목: 가톨릭 교회 혼인법
- 강사: 이용호 신부

첫영성체 교리 접수

- 대상: 초등학교 3 6학년
- 접수기간: 1월 21일(주일) 까지
- 접수장소: 사무실
- * 접수기간 이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사목회의

- 일시: 1월 21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미카엘방

2018년 상반기 혼인강좌 안내

- 일시: 2018년 2월 11일 주일 12시 ~18시
- 대상: 2018년 1월 2018년 8월에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부부
- 신청기간: 2018년 1월 14일 ~ 2월 4일
- 장소: 가브리엘 방 (변경시 개별 연락)
- 접수: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신청비 50불과 함께 신청바랍니다.
- 문의: 김 훈 길버트 0428 866 317

단체모임

- 1월 7일(주일) 전례분과, 홀리패밀리, ME

| ■ 7/1 3구역

- 1월 13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복사자모회
- 1월 14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카나소공동체

■ 14, 21/1 4구역

- 1월 20일(토) 꾸리아, 헌화회

3차 성지순례단 모집

- 순례기간: 2018년 4월 16일(월) 23일(월)
- 모집인원: 43명
- 신청기간: 2018년 1월 21일 마감
- 신 청 비: \$500

주일학교 방학 미사시간 변경 안내

- 방학기간 동안 5시 30분 초, 중고 합동 미사로 봉헌 됩니다. - 방학기간동안 석식은 제공 되지 않으며 도서부, 성물방도 토요일 휴무합니다.

초축성(주님 봉헌축일)

- 2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미사 중
- 제대에서 일년동안 사용할 초를 봉헌하실분은 성물방에서 접수
- (제대용: \$9, 개인용: \$6))

남 오메르 수녀님 피정

- 날짜: 1월 8일(월) - 17일(수)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1월 14일) 조준환 야고보, 장병일 엘리지오, 최상엽 베드로, 송찬용 요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대건관 건립 기금

- 안나회: \$3,000

구역 전입/전출자

- 배숙영 루시아 가정: 3구역 5반 -> 12구역 4반

주차 금지구역 엄수

- 성당 주위 이웃의 신고로 파라마타 카운슬에서 주차 단속을 실행합니다. 지난 17일(주일) 경고가 있었으며 24일(주일) 부터는 불법 주차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성당 앞 NO PARKING, 교차로 주차(10m) 와 드라이브웨이 등 주차 금지구역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당 성전 입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중 정차와 승하차로 매우 혼잡합니다. 이는 사고의 위험과 주행 차량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카운슬에서 시행하는 시간제 주차금지 표지판을 유념하시고 토, 일 오전 6시 - 오후 2시에 성전 입구 4대분 주차 공간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은 승하차만 허용됩니다. 신자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1/2 6구역



소고기 콩나물 비빕밥 + 특냉국

또한 성당 주변 주택 또는 사업장 출입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내 쓰레기통 앞에는 주차를 하지 마십시요

교차로 주차: 10m 10m

증스[■ 전데, 커피, 정소 9:00 am, 10:30 am			****	
사무실 업무시간 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봉헌금	교무금	기타	미사 참례수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2,183.85	\$22,275.60	\$-	1,687

■ 28/1, 4/2 5구역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 요셉 신부), 8756 3332 (이 사도요한 신부), 8756 3331 (김경수 바오로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 필로메나 원장수녀, 강 마리안나 수녀, 남 오메르 수녀) 연령회 0430 827 577 (이성복 요셉)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 스테파노)

주님 공현 대축일 (The Epiphany of the Lord)



2018. 1. 7 (나해) / 제180호

보좌신부: 이준석 사도요한,김경수 바오로

고해신부: 홍야고보

오늘도 그녀의 손이 힘차게 허공을 휘젓는다. 손은 곧 파도같이

손목이 한차례 꺾인다. 찰나의 순간, 숨이 멎고 아늑한 공간이

그녀가 양손을 치켜들었다. 동그랗게 그린 원이 벼락처럼 땅을

향한다. 어디선가 천군만마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주님의

솟구치더니 이내 잔잔한 바람이 되어 구름처럼 흘러간다.

펼쳐진다. 시름과 고통이 없는 공간. 잠들고 싶다.

반짝이는 별들이 그녀의 손끝에 앉았다.

군대. 주님을 따르는 함성 소리다.

우리 성가대는 주님을 부르는 성가대다. 나는 그 씩씩한 모습을 늘 감명 깊게 마주하고 있다. 당당한 그

모습, 멋진 하모니에 언제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훌훌 털고 지긋이 내려오신다. 나는 미사 때마다

그들이 잘 보이는 곳에 앉는 것이 버릇이 됐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세련되고 범상치 않아 보인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군대에서 천리마 행군이 있었다. 완전군장에 총을 매고 산을 따라

빗길을 걷고 또 걸었다. 옷은 만신창이가 됐고 군화 속 발바닥은 물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기진맥진해 다리에 힘이 빠져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앞 사람이 가고 뒷사람이 따라오니 할 수 없어

그때, 멀리서 실낱같은 군악대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마중 나온, 행군을 환영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때 그녀의 손이 힘차게 허공에 떠올랐다. 한 줄기 실낱같은 피아노 음절이 천장을 휘감다 내 머리에

머리카락을 타고 가슴으로 들어와, 구석구석 온 몸으로 전율됐고, 기쁨과 안도 그리고 서러움으로

주님의 사랑스런 어린 양. 한때 그들은 당당하고 품격 있는 멋진 삶을 살은 듯하다.

따라가고 있었다. 등에 진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손에 찬 시계조차 무거웠다.

'어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못갈 것 같아요. 나 여기서 눕고 싶어.

그렁그렁 눈물을 고이게 했다. 난 그렇게 마지막 발을 힘차게 내딛었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못갈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눕게 해 주세요."

호주의 삶은 너무 먼 길이었다. 나는 이 길을 어릴 적부터 걸었다.

수녀: 이경화 필로메나, 강형숙 마리안나

남귀이 오메르 사목회장: 최병훈요셉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사목지표

⊕ 주님의 성가대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미사 시간 안내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641 George St Sydney

St Peter Julian's Church

주님이 걸어오신다. 나를 향해 걸어오신다.

우리 성가대에서 그 군악대가 느껴진다.

난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았다. 성가대의 우렁찬 소리가 본당을 번쩍 들어올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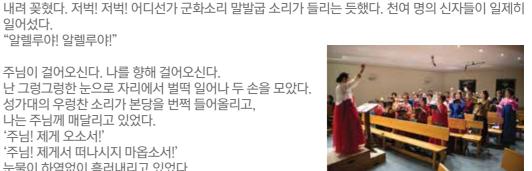
나는 주님께 매달리고 있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제게 오소서!'

일어섰다.

'주님! 제게서 떠나시지 마옵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명호 제노 (성당 문학회)

①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487 봉헌: 111, 105, 510 성체: 167, 175, 165 파견: 100

제 1독서: 이사 60,1-6 제 2독서: 에폐 3,2.3ㄴ.5-6 복음: 마태 2,1-12



신년 세배









1일(월) 10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있었다. 미사 후 전신자 떡 나눔과 기념관에서 초등부 학생들의 신년 세배가 있었다.

2018년 사목위원 임명

회장단			
사목회장	이성복 요셉		
남성총구역장	박재혁 헨리코		
여성총구역장	장성자 데레사		
기획 및 재정부회장	장기영 토마스		
총무	이수웅 시몬		
분과장			
선교분과장	조숙자 요안나		
시설분과장	김영곤 토마스		
교육분과장	박보아 카타리나		
전례분과장	최정례 체사리아		
사회복지분과장	박유진 베로니카		
노인분과장	최은선 비비안나		
청소년분과장	차경희 마가렛		
문화분과장	조종식 데이비드		
홍보분과장	이순호 패트릭		

신임 구역장 임명

등사유통 한국택배전문업체

* 호주산 소고기 선물세트 - 와인

* 경 조사용 꽃 바구니 화환 케익

9750 2694 / 0425 213 503 Decided doubles

구역장 임명		
2구역장 여성	김영애 세실리아	
5구역장 남성	임성준 아우구스티노	
7구역장 여성	성성자 크리스티나	
12구역장 여성	고혜자 글라라	

혼인 장애(조당) 해결을 위한 특별 공지

찬미예수님!

많은 교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회 혼인법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무조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만 생각하여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신 분들이나 성당에서 관면혼배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멀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혼인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혼인예식에 따라 혼인을 해야 하고, 혼인한 사람은 첫 번째 남편 혹은 아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혼인장애(조당), 즉 혼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임신부와 면담을 통해 혼인장애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혼인에 관한 문제(혼인장애, 조당)는 그 경우(case)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다르지만 세례 받은 신자가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이혼한 다음 타인과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교회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분들의 혼인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본당에 마련되었습니다. 주임신부의 요청으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님께서 2018년 1월 14일 교구 사법대리 이용호 바오로 신부님을 우리 본당에 파견하시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도록 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원은 이혼하고 재혼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법원에서는 누가 잘못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혼인동의 과정에서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문제가 있는지 따질 뿐입니다. 따라서 설령 본인의 문제가 크더라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본당 주임신부(0404 089 229)와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신부님은 이곳에 와 계신 동안 혼인장애 해결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4회에 걸쳐(1월 17일, 18일, 19일, 21일) 가톨릭 혼인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 가톨릭 혼인법을 잘 이해하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행복한 혼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DIAMOND TO SPECIALIST 시드니부동산 Sydney Nationwide Realty 다이아온드는 전문가에게 전통의 교민 1호 부동산 02.9246.8007 김진웅 야고보 0416 000 534 0411.456.444 이재선 요안나 0401 521 118









0450 723 884 / 02 8678 3884 www.hjtotalfitout.com.au

주님 공현 대축일 / 마태 2, 1 - 12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2)

① 살아 숨쉬는 공동체

▶ 내 신앙의 여정에서 별처럼 나를 인도해주었던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면 소개합시다.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2)

▶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0)

▶ 신앙의 여정에서 큰 기쁨을 얻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1)

- ▶ 내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 ▶올해 내가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 성경구절

위 성경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1월 활동토의 (예문)

※ 2018년 본당 공동체, 구역, 반 공동체 활동이나 행사에 대하여 올해에도 본당의 사목지표는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입니다. 먼저 본당이나 구역 공동체에 건의 사항을 나누고 우리 반 공동체에서 올해 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에 대해 토의합니다.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 혼인법 강좌 - 강사: 이용호 신부님



말씀묵상 - 동방박사의 의미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선물 가지고 숲과 산과 강을 건너 별 따라 갔도다~"(가톨릭성가 487번)

1월 7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이다. '동방의 세 박사' 성가 구절처럼 아기 예수가 세 명의 동방박사를 통해 처음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건이 기념된다. 마태오 복음 2장 1-12절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 별을 따라 찾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황금·유향·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이들은 누구였으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뜻으로 풀이될 수 있을까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아 '동방박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어디서 온 이들일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마태 2,1) 구절에서 보듯 성경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 명확하지 않다. 세 명으로 여긴 배경은 예수님께 바친 세 가지 선물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교부 오리게네스(Origenes · 185년 추정~254년 추정)가 처음으로 '세 가지 선물로 미루어 세 사람'이라고 말했다.

황금·유향·몰약

박사들이 예물로 바친 황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심을 드러낸다. 또 유향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몰약은 '참사람이심'을 각각 상징한다.

교부들은 '금'과 '유향'을 '왕권'과 '예수님 신성'으로, 또 '몰약'을 '예수님 죽음'으로 풀이했다. 특정 종(種)의 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몰약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고통을 상징한다.

세 가지 봉헌물은 당시 이방인들이 태양신에게 바치는 예물이었다. 그런 면에서 '곧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 떠오른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상 모두에게 드러난 빛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며 신앙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박사들이 먼 나라 동방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와 경배하고 귀한 선물을 바쳤다'는 부분이다. 이는 '빛과 계시의 축일'로도 불리는 주님 공현 축일 의미처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과 아기 예수의 만남은 예수가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만백성에게 구원의 빛이시라는 뜻을 나타낸다. '구원'이 어느 한 민족, 한 백성,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보여준 것이다

안문기 신부(대전교구 원로사목자)는 「은혜로운 계절축제」에서 "동방박사들은 하느님께로 가는 순례의 길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이를 이겨냈다"면서 "신앙인들도 하느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가톨릭 신문



텔스트라 캠시점

TEL: 02 9784 9888

직수 직수 직수

https://youtu.be/gcxxPPuCQV8

10416 1004 99 T 9643 9999

직수형 정수기

3





★ JANG (미카엘라)

보석 감정사 (FGAA 4045)

428 George St. Sydney



Miracle Finance









